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ne 2025 Issue | Vol. 4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중동 전쟁, 금리 인하와 임금 인상 추진 저해할 듯’ — page 1-2
- 더 많은 의약품,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 — page 3
- PPP 사업 목록에 53개 프로젝트 추가 — page 3-4
- 에너지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침서 발간 — page 4
- 관광 업계, 필리핀을 ‘가장 위험한 관광지’로 지목한 조사에 반발 — page 5
- 온라인 거래법 시행 개시 — page 5-6
- PEZA: 필리핀,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 갖춰 — Peza — page 6-7

‘중동 전쟁, 금리 인하와 임금 인상 추진 저해할 듯’

June 24,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RIPPLE EFFECT: MIDEAST TENSIONS FUEL PHL ECONOMIC WOES

Economists break down economic fallout from oil shock

→Oil Price Shock / Inflation

“Because Iran can control the Strait of Hormuz where around 20 percent of oil passes, if Iran decides to close it, the price of oil will accelerate.” — George B. Manzano

→Stagflation Risk

“This will highlight the risk of higher stagflation and greater unemployment.” — Leonardo Lanzona Jr.

→Wage Hike Tension

“If oil prices increase, inflation will also increase. This will be a burden to households, leading workers to ask for higher wages.” — Maria Ella Oplas

→Interest Rates and Investment

“The inflationary pressure may discourage the BSP from cutting interest rates further, thus dampening investments.” — Manzano

→Employment / OFW Repatriation

“Unemployment will balloon because of the returning OFWs.” — Oplas

→Green Transition

“The Philippines can try to reduce its dependence on oil by engaging in more green investments which unfortunately are now going to involve more funds.” — Lanzona



What is Stagflation?

A rare economic condition marked by high inflation, slowing economic growth, and rising unemployment. Popularized during the 1970s US oil crisis, when expansionary policies failed to reduce joblessness and instead triggered runaway inflation.

BM Graphics: Ed Davad

중동 지역의 분쟁은 추가 금리 인하를 저해하고 최저임금 인상 추진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국내 경제학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번 사태가 필리핀의 수입산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기로 결정한다면 유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라고 아시아태평양대학교(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경제학자이자 전 관세위원회 위원인 조지 B. 만사노(George B. Manzano)는 《비즈니스미러(BusinessMirror)》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러한 영향은 필리핀에도 인플레이션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필리핀은 석유 순수입국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델라살대학교(De La Salle University)의 경제학자 마리아 엘라 오픈라스(Maria Ella Oplas)는 《비즈니스미러》에 중동의 분쟁이 가정과 국내 노동자, 심지어 해외 노동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라스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에 부담이 되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오픈라스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오히려 근로자 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필리핀 해외근로자(OFW) 대다수가 중동 지역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쟁과 그에 따른 일자리 악화로 인해 귀국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고 오픈라스는 말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사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불러옵니다. 유가 상승은 결국 더 빠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라고 오픈라스는 《비즈니스미러》에 전했다.

“물론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운영 비용도 영향을 받아 노동자를 줄이거나 감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중동에서 돌아오는 OFW까지 더해지면 실업률은 폭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Cont. page 2]

‘중동 전쟁, 금리 인하와 임금 인상 추진 저해할 듯’

[Cont. from page 1]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실업 위험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Ateneo de Manila University)의 경제학자 레오나르도 란소나 주니어(Leonardo Lanzona Jr.)는 이번 사태가 “더 심화된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stagflation)과 고실업의 위험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전 사회경제기획 장관 단테 B. 칸라스(Dante B. Canlas)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란 용어는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경제 성장 둔화, 높은 실업률, 그리고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1970년대 미국이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expansionary macroeconomic policies)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 했던 시도에서 이 용어가 생겨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칸라스는 이러한 미국의 경험이 학계에서 ‘표준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은 필립스 곡선의 논리에 반하는 개념이다.

1950년대에 뉴질랜드 출신 경제학자 빌 필립스(Bill Phillips)가 만든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실업률은 낮고,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실업률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고용되면 소비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하고, 반대로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어 물가도 낮아진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란소나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과 고실업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며, “트럼프와 같은 전쟁 유발자가 최고 권력자리에 있을 때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 투자(Green investments)

란소나(Leonardo Lanzona) 교수는 중동 분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필리핀이 석유 의존도를 제고하고 보다 많은 녹색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국가의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라스(Maria Ella Oplas) 역시 필리핀이 이미 다른 재생 에너지원들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란소나는, 정부가 현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전환은 정부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란소나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보다 많은 녹색 투자를 통해 석유 의존도를 줄이려 시도할 수 있지만, 불행히도 녹색 전환 초기 단계에서는 생산성이 여전히 기존 에너지원에 기반하고 있어, 이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갈등이 필리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만사노(George B. Manzano) 교수는 이는 해외 필리핀 노동자(OFW)는 물론 관광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원자재 가격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픈라스는 석유가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석유 순수입국이며 주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란소나는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대응에 달려 있다. 미국은 자국의 조치가 이란을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로 이끌고 상황을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 의사를 분명히 한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stagflation)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에 대해 월요일(6월 23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 분쟁 및 경제 불안 확대 속에 외교적 해법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현재 외교부는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비상 계획을 갱신 중이다.

필리핀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외교의 길을 택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갈등의 추가 확산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BusinessMirror 기사 보기](#))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24/mideast-war-to-deter-rate-cut-wage-hike-bid/#:~:text=THE%20conflict%20in%20the%20Middle,Philippines's%20dependence%20on%20imported%20oil>

더 많은 의약품,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

June 23,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CATEGORY	GENERIC NAME	DOSAGE STRENGTH	DOGASE FORM
Medicines for Cancer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Potassium	20mg / 5.8mg / 19.6mg	Capsule
	Tegafur + Gimeracil + Oteracil Potassium	25mg / 7.25mg / 24.5mg	Capsule
Medicines for Diabetes	Metformin Hydrochloride + Teneligliptin (as hydrobromide hydrate)	1g / 20mg	Extended-Release Tablet
	Metformin Hydrochloride + Teneligliptin (as hydrobromide hydrate)	500mg / 20mg	Extended-Release Tablet
Medicines for High Cholesterol	Atorvastatin (as calcium) + Fenofibrate	20mg / 160 mg	Film-Coated Tablet
Medicines for Hypertension	Metoprolol tartrate + Ivabradine (as hydrochloride)	50mg / 5mg	Film-Coated Tablet
	Metoprolol tartrate + Ivabradine (as hydrochloride)	25mg / 5mg	Film-Coated Tablet
Medicines for Mental Illness	Lamotrigine	5mg	Dispersible/Chewable Tablet
	Lamotrigine	25mg	Oral Dispersible Tablet
	Lamotrigine	25mg	Tablet

- 암 치료제인 테가푸르 + 기메라실 + 오테라실 포타슘
-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 테넬리글립틴
-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칼슘염) + 페노피브레이트
- 고혈압 치료제인 메토프로롤 타르트레이트 + 이바브라딘(염산염)
- 정신질환 치료제인 라모트리진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계개혁을 통한 가속화와 포용법」(Republic Act No. 10963, TRAIN 법) 및 「기업회복 및 세제 인센티브법」(Republic Act No. 11534, CREATE 법)에 근거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청(FDA)의 최신 평가를 반영하여 현재의 공공 보건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루마귀 청장은 “BIR는 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10종에 대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국세청의 ‘우수 납세자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2723](https://www.pna.gov.ph/articles/1252723)

PPP 사업 목록에 53개 프로젝트 추가

June 24, 2025 | Anna Leah Gonzales | The Philippine Star

필리핀 마닐라 — 정부는 공공-민간 협력(PPP) 방식으로 추진될 53개 프로젝트를 새로 추가하여, 총 2조 6,100억 페소 규모의 PPP 사업 파이프라인을 230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PPP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 기준으로 9개의 프로젝트는 PPP 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정 전인 4월 11일자 PPP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PPP 파이프라인에는 총 2조 6,400억 페소 규모의 187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추가된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ComClark Network and Technology Corp., JG Summit Infrastructure Holdings, **Asia’s Emerging Dragon Corp.**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안한 전국 항공 항행 서비스 PPP 사업으로, 제안 금액은 315억 5,000만 페소에 달한다.

이 외에도 PPP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프로젝트로는 **필리핀우주청(Philippine Space Agency)**의 250억 페소 규모 통신위성 개발 사업과 70억 페소 규모 지구관측위성군(Constellation of Earth Observation Satellite) 개발 사업이 있다. [Cont. page 4]



PPP 사업 목록에 53개 프로젝트 추가

[Cont. from page 3]

최신 PPP(민관협력) 사업 목록에는 제너럴 산토스 항을 비롯한 여러 항만의 화물 처리 및 관련 서비스의 운영·관리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바링오안(Balingoan) 및 자산(Jasaan), 롬블론(Romblon) 및 암불롱(Ambulong), 타블라스(Tablas) 및 카르멘(Carmen), 나수그부(Nasugbu), 산 후안(San Juan), 록사스(Roxas), 만살라이(Mansalay), 불랄라카오(Bulalacao), 반수드(Bansud), 폴라(Pola), 푸에르토 갈레라(Puerto Galera), 아브라 데 일로그(Abra de Ilog), 산 호세(San Jose), 산 후안 루방(San Juan Lubang), 루세나(Lucena), 발라나칸(Balanacan), 비락(Virac), 산 안드레스(San Andres), 마스바테(Masbate), 리파타(Lipata), 코론(Coron), 산 페르난도(엘니도), 보락(Borac), 시키호르(Siquijor), 라지(Lazi), 라레나(Larena), 바나고(Banago), 히노바안(Hinoba-an), 히마말란(Himamaylan), 다나오(에스칼란테), 투비간(Tubigan), 이사벨라(Isabela), 클라린(Clarin), 룬(Loon), 마리보호크(Maribojoc), 플라리델(Plaridel), 릴라이(Lilay), 또 다른 록사스(Roxas), 투보드(Tubod), 딩갈란(Dingalan), 카시구란(Casiguran), 라마오(Lamao), 카핀핀(Capinpin), 팔람판(Palampalan), 힐롱고스(Hilongos), 바이바이(Baybay), 산 리카르도(San Ricardo), 칼바요그(Calbayog), 캣발로간(Catbalogan), 쿠리마오(Currimao), 카틱란(Caticlan), 두망가스(Dumangas), 알레그리아(Alegria), 쿨라시(Culasi), 마티 마카(Mati Maca), 리마이(Limay), 오리온(Orion), 산 페드로 요세(Fort San Pedro), 오폴(Opol) 등 전국 각지의 항만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PPP 목록에 새로 추가된 주요 사업에는 리잘 공원 서쪽 구역 개발, 산 비센테 전략 관광지구 내 발전 및 전력 공급 사업, 전자 관세처리 시스템(Customs Processing System), 세부 킹스필드 골드 앤 레저(Kingsfield Gold and Leisure Cebu), 클락 통합 교통 시스템(Clark Integrated Transport System), 필리핀 우정공사의 PPP 및 우편 신분증(Postal ID) 제안 사업, 뉴 클락 시티 정보통신기술 수동 인프라 개발 사업, 일로일로 종합병원 개발, 타바코 시 4PH('Pambansang Pabahay Para sa Pilipino' , 국민주택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있다.

반면, PPP 목록에서 제외된 사업으로는 바기오 4PH 프로그램, 마리아노 마르코스 주립대학교의 2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바탄주의 대용량 상수도 공급 시스템, 태양광 지붕 설치 프로젝트, 마리벨레스 투석센터, 바탄 마이크로그리드 지붕형 전력 시스템, 바탄 신흥 관문 도시 개발 사업, 마닐라 중앙 우체국 개발 사업, 그리고 제너럴 산토스 항만의 운영·유지보수 및 확장에 대한 민간 제안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들 프로젝트는 시행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PPP 센터는 또한 팡가시난주 망가타렘(Mangatarem) 시의 상수도 공급 시스템 개발 사업도 시행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PPP 파이프라인 목록이 아닌 시행 중인 프로젝트 목록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24/2452771/53-projects-added-ppp-pipeline>

에너지부, 해상풍력 프로젝트 지침서 발간

June 24, 2025 | Ed Paolo Salting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에너지부(DOE)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허가 요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정부 기관을 지원하는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참고 자료의 정식 명칭은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 종합 안내서: 필리핀에서의 인허가 절차 가이드북」**으로, 25개 이상의 기관에 걸쳐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작되었다.

이 가이드북은 부지의 초기 평가 및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건설, 운영, 철거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 주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자연자원부(DENR), 해사산업청(MARINA), 교통부(DOTr), 국가지도·자원정보청(NAMRIA), 필리핀 해안경비대, 그리고 국가원주민위원회(NCIP) 등 인허가 절차 전반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들의 역할도 명확히 제시한다.

해당 지침서는 2023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제21호와도 연계된다. 해당 명령은 해상풍력 사업 인허가를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명령하며, DOE가 운영하는 **에너지 통합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Energy Virtual One-Stop Shop, EVOSS)**과도 통합된다. EVOSS는 에너지 관련 인허가를 온라인 상에서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지침서는 중앙정부 기관, 산업 전문가, 지방정부와의 1년간의 협의를 거쳐 개발되었으며, 덴마크계 국제 컨설팅 기업 니라스(Niras)가 개발협력, 해상풍력, 엔지니어링·설계 분야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DOE의 로베나 개바라 차관은 “우리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환경과 지역사회 보호를 희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지침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동시에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DOE 샤론 가린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게임 체인저”라며 “이 지침서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고, 정부와 투자자 모두가 쉽게 따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DOE는 전반적으로 이번 가이드북이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관료적 비효율을 줄이며,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사회적·생태적 보호 조치 또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6/24/business/top-business/doe-issues-guidebook-for-offshore-wind-projects/2138098>

관광 업계, 필리핀을 ‘가장 위험한 관광지’로 지목한 조사에 반발

June 24,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관광 산업계 지도자들은 최근 필리핀을 ‘관광객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 국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관광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Cristina Garcia Frasco) 장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HelloSafe 안전지수 2025(HelloSafe Safety Index 2025) 보고서를 “의심스러운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현장의 실제 상황과는 전혀 동떨어진 평가”라고 비판했다.

필리핀호텔소유주협회(PHOA) 회장 아서 로페즈(Arthur Lopez) 또한 해당 보고서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순위는 팬데믹 이후 수년간의 관광 회복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HelloSafe 보고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공정하며, 관광 및 환대 산업의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여행사 협회 회장이자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필리핀 지부 의장인 마리아 파즈 알베르토(Maria Paz Alberto) 회장은, HelloSafe 지수와 같은 왜곡된 서술은 “잠재적인 방문객들을 단념시키고, 인바운드 관광에 의존하는 기업들에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여행사 협회(Philtoa) 회장 아르준 슈로프(Arjun Shroff)도 “책임 있는 메시지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잘못된 서술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국내 관광 산업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광업계 지도자들은 또한 **내무부 장관 존빅 레물라(Jonvic Remulla)**의 최근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관광 업계 관계자들은 그의 발언이 부적절할 뿐 아니라, 필리핀의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고 평가했다.

레물라 장관은 호텔세일즈마케팅협회가 주최한 ‘세일즈 앤 마케팅 서밋’ 기조연설에서 HelloSafe 조사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필리핀에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두려워하죠. 여기서 벌어지는 각종 나쁜 뉴스들,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살인조차도 일상적인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24/2452753/tourism-stakeholders-slam-survey-naming-philippines-least-safe-tourists>

온라인 거래법 시행 개시

June 24, 2025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malaya Business Insight

산업통상자원부(DTI)는 6월 20일부터 전환 조항이 종료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규정과 법적 책임을 규정한 **인터넷 거래법(Internet Transactions Act, IT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6월 24일(월) 성명을 통해 밝혔다.

DTI는 이어 2025년 6월 21일 별도로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온라인 판매자, 디지털 플랫폼, 기타 전자상거래 업계 종사자들은 이제 해당 법률을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TI는 성명에서, **인터넷 거래법 또는 공화국법 제11967호(RA 11967)**가 모든 온라인 판매자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새로운 규정과 법적 책임을 즉시 적용하는 효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DTI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DTI가 **불법 상품이나 서비스가 등록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takedown order)**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자사 사이트 내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즉시, 모든 전자상거래 플랫폼(e-marketplaces), 전자소매업자(e-retailers), 온라인 판매자들은 판매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가격, 브랜드명, 설명, 상태, 그리고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국법 제11967호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정한 분쟁 해결 시스템, 안전한 결제 방식, 강력한 데이터 보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해, **DTI 산하 전자상거래국(E-Commerce Bureau)**은 조사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강제하는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DTI의 권한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타 규제 기관이 보유한 주관 권한을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을 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Cont. page 6]



Foreign tourists checking their travel documents upon arrival at the 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in Pasay City.

Rudy Santos

온라인 거래법 시행 개시

[Cont. from page 5]

DTI는 현재 ** ‘필리핀 전자상거래 신뢰마크(Trustmark)’ **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가시적인 품질 인증 마크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뢰마크는 전자상거래 정책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나타내는 인증 마크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표준 준수를 장려하며,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신뢰와 자발적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국법 제11967호는 2023년 12월 5일 서명되었으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어, 온라인 판매자, 전자소매업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등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로케(DTI 장관)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번 인터넷 거래법의 전면 시행은 필리핀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필리핀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동시에 **수천 명의 정직한 국내 기업가와 중소기업(MSMEs)**이 **불공정 경쟁과 불법 거래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라자다 필리핀(Lazada Philippines)의 최고경영자(CEO) 카를로스 바레라(Carlos Barrera)는 “당사는 DTI와 전자상거래 정책 및 규제와 관련한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필리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23년 제정된 인터넷 거래법(공화국법 제11967호) 마련 과정에서 DTI와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그 시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internet-transactions-act-takes-effect/](https://malaya.com.ph/business/corporate/internet-transactions-act-takes-effect/)

PEZA: 필리핀,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 갖춰

June 23, 2025 | BusinessMirror

필리핀경제구역청(PEZA) 수장에 따르면, 필리핀은 농산물 등 주요 수출 유망 품목을 더욱 강화할 경우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PEZA 테레소 오. 팡가(Tereso O. Panga) 청장은 최근 SNS 게시물을 통해, 필리핀이 지난 3년간 글로벌 상위 5대 산업 리더국에 꾸준히 포함된 주요 농산품으로 아바카(abaca), 파인애플, 코코넛, 바나나, 해조류 및 카라기난(carrageenan) 등을 꼽았다.

팡가 청장은 “필리핀통계청(PSA)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은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전체 수출 실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이유로 마르코스 정부는 2028년까지 필리핀을 ‘수출 강국(export powerhouse)’ 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 말했다.

팡가 청장은 이 전략이 “필리핀이 본질적으로 농업 국가임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다” 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필리핀이 전 세계 아바카 섬유 생산량의 약 85%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 아바카 수출국임을 강조했다.

과일 수출 분야에서도 필리핀은 코스타리카에 이어 파인애플 세계 2위 수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코코넛 2위 수출국, 에콰도르에 이어 바나나 2위 수출국이라고 팡가 청장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해조류 및 카라기난 수출 분야에서는 세계 4위 수출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팡가 청장은 또 PEZA 경제구역 내에는 이러한 농산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돌(Dole), 델몬트(Del Monte), 카길(Cargill), 프랭클린 베이커(Franklin Baker), 스미후루(Sumifru), 필코 식품 가공(Philco Food Processing, 타이월드 그룹) 등을 언급했다.

[Cont. page 7]

PEZA: 필리핀,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잠재력 갖춰*[Cont. from page 5]***기타 수출 산업**

농산물 외에도, 테레소 팡가(PEZA 청장)는 필리핀이 전자제품, 전기 헤어드라이어, 테니스공, 유압 서보 밸브(HSV) 등 여러 산업에서 세계 주요 공급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전자 산업에서 필리핀은 세계 9위 반도체 수출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아날로그 디바이스(Analog Devices), 앰코 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TMicroelectronics), 온 세미컨덕터(ON Semiconductor) 등 오랜 기간 필리핀 경제구역에 입주해 있는 EMS-SMS 기업들의 활동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팡가 청장은 세계 HSV 공급업체 디렉토리(Volza)를 인용해, 2024년 세계 최대 HSV 수출·공급업체인 MOOG Singapore PTE. LTD.가 필리핀 내에도 MOOG Philippines라는 법인을 운영 중이며, 바기오시 경제구역에서 지난 30년간 활동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사가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봄바디어(Bombardier)와 같은 글로벌 상업용 항공기 제조사에 HSV를 공급하고 있으며, HSV는 이착륙과 항행을 가능하게 하는 항공기 비행 시스템 등 고정밀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과 태국에 이어 세계 3위 잔디 테니스공 수출국으로도 자리잡고 있다. 팡가 청장은 “다바오 델 노르테 파나보(Panabo)의 안플로 산업단지(ANFLO Industrial Estate)에 최대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헤드(HEAD)’와, 바탄 경제구역(현 AFAB)에 오래전부터 입주해 있는 ‘던롭(Dunlop)’이 대표적인 글로벌 수출업체”라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은 중국에 이어 전기 헤어드라이어 세계 2위 수출국으로, 특히 다이슨(Dyson)이 필리핀 내 입주 기업 중 하나로서 지능형 열 제어, 다양한 부속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를 인용한 팡가 청장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으로, 2024년 33만 톤의 니켈 함유량을 생산하며 전 세계 생산량의 8.92%를 차지했다.

그는 “타가니토 고압산 침출 니켈(Taganiito HPAL Nickel Corporation)과 코랄 베이 니켈(Coral Bay Nickel Corporation)은 2005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코발트 혼합 황화물 생산업체 중 하나로 활약해왔다”고 밝혔다.

투자 유치 및 경제구역 활성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팡가 청장은 “기존 투자자들의 사업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고, 유력 수출기업들의 국내 경제구역 내 투자 유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 필리핀은 동남아 차세대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필리핀은 일부 고성능 산업 부문에서는 이미 수출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글로벌 순위로 보면 195개국 중 상위 40~45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통계청(PS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4월 merchandise 수출 총액은 268억7,000만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의 245억4,000만 달러 대비 9.5%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농산물 기반 제품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4년 18억3,000만 달러에서 2025년 23억4,000만 달러로 27.6%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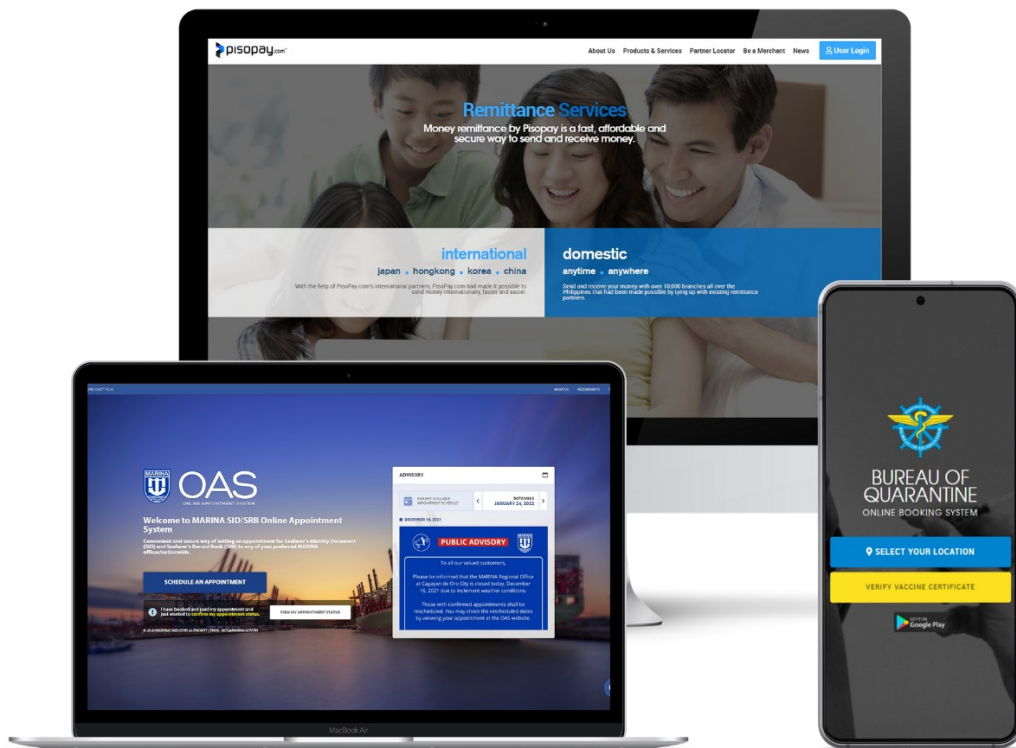
이 유형에 포함된 품목으로는 코코넛 제품, 설탕 및 관련 제품, 파인애플 주스, 바나나, 아바카 섬유, 해조류 등이 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23/phl-has-what-it-takes-to-become-global-export-powerhouse-peza/>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Elevating the definition of Fintech Standards



CONTACT US

- (02) 8242 8153
- info@pisopay.com.ph
- <https://www.pisopay.com.ph>
- Pisopay Bldg, 47D Polaris, Makati, 1209 Metro Manila

